



유전자원 연구원이 되었다.  
죽어가던 토종 씨앗들을 다시  
우리 품에 돌려준 그의 정신은  
우리가 싹 틔우고 키워야 할  
가장 귀한 씨앗이다.

1952년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.  
고등학교 이사로 인천 중구 서림초등학교에 입학  
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입학  
고등학교 때부터 해 온 원예반 활동에 더  
농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.  
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입학  
농학사 시험 합격, 군대 제대 후 곧장 농촌진흥청으로  
농촌진흥청에서 밀 육종 연구 교육  
에서 밀 육종 공무  
유전자원 관리 공무  
유전자원 연구 및 보존 책임  
농업유전자원 관련 국제회의 참석  
밀 육종방법에 관한 연구로 농학박사 취득  
실제 보관된 우리 품 5천점 중 2천점 반환  
밀, 보리, 제스 등의 씨앗을 가져왔다.  
가 살피고 신중하게 일을 도맡았다.  
종자 50만점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 
민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로 다시 태어났다.  
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의  
대학교 객원교수 겸임  
연구 전담기구인 유전자원과 신 초대 유전  
800점을 찾아왔다.  
국의 종자 현지 수집  
한국토종연구회 창립  
의 식물유전자원 연구 체계를 확립하는  
장관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 
후 전국귀농농민운동, 전국 각 지역의 도시  
관한 교육 및 강연 실시  
상남도, 제주도, 화성시, 수원시의 토종조례제정에 도움  
국가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 플랜 자문  
4월 비영리단체인 카페 토종 씨드림을 창립, 현재까지 운영중  
토종 씨드림은 2013년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 
토종 씨앗 수집활동도 계속해 2000년 가평도, 제주도, 울릉도에서